중생 소리 듣는 관찰자 '관세음보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㊶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그때 무진의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향하여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그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합니까?"

부처님이 무진의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나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이는 설사 큰 불속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신력(威神力) 때문이니라.

만약 큰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며,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 귀신의 나라에 닿았을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 귀신들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관세음(觀世音)이라 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해치려던 사람이 가진 칼이나 작대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해를 입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만약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큰 위신력이 있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응당히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게 되며, 만약 딸을 낳고자 하면 곧 예쁘고 잘생긴 딸을 낳으리니 이 아이가 숙세에 선근을 심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얻는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대승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대승의 삼대(三大) 보살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이라 한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원을 상징하며 관음은 자비를 상징한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여 말하면 문수는 눈이고 보현은 발이며 관음은 손이다. 중생들을 눈으로 보고 발로 움직여 다가가 손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보살행이다.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보살행이지만 이러한 남을 위하는 보살행을 '자비의 손길'이라 줄여 말한다.

위의 내용이 설해져 있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별도로 유통시켜 〈관음경〉이라고도 한다.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는 경이다. 무진의보살의 질문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설명해 주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의 인연을 설명해 준다. 세상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위신력을 발휘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것이다. 불, 물, 바람 이른바 삼재(三災)의 재앙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탐욕과 화, 그리고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없애주며, 중생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게 해 주는 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라고 권하고 있다. 병이 있는 환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으니 이 약을 받아먹어 보라는 것처럼 말해 놓았다. 〈관음찬(觀音讚)〉에는 관세음보살을 대의왕(大醫王)이라 칭하고 있다. 〈법화경〉 외에도 관세음보살은 〈화엄경〉 53선지식 속에도 등장하고 〈능엄경〉 '이근원통장'에도 나온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 관찰자가 되어 보문시현(普門示現)하여 어디든지 출현하여 중생의 고난을 구원해 주는 불교의 성모(聖母)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번뇌, 긍정적 덕성인 지혜·자비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㊶ 덕윤리와 불교윤리

좋은 이미지로 대중에게 호감을 샀던 이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대중에게 호감을 샀던 이들이 대중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크게 실망할 때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 많은 이들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됨됨이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람 됨됨이는 '사람으로서 지니는 품성이나 인격'을 뜻하며, 이것은 동·서양에서 중시하는 덕과 일맥상통한다.

서양에서 덕에 대한 논의는 고대 윤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계승한 플라톤은 지식과 동일시되던 덕(德)을 개인의 덕과 사회적인 덕으로 구분했다. 그는 개인과 사회적인 덕 모두 선(善)의 이데아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선과 쾌락이 조화된 상태를 행복(幸福)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탁월성으로 정의하면서 자기의 탁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다. 그는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구분하고, 이는 중용(中庸)에 유지된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는 윤리학이 공동체와 그것의 도덕적 건강 및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동체의 도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덕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눈다. 하나는 탁월함 또는 목적에의 적합성이며, 다른 하나는 인격의 특정한 형질이다. 후자는 수양과 학습을 통해 습관적이고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인 덕과 상당히 유사하다. 아울러 덕의 본질은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의 덕윤리에서는 근대 윤리학을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무시한 채 도덕적 의무와 도덕 법칙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근대 윤리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해 덕윤리의 초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다시 말해 덕윤리에서는 행동 주체인 개인의 인격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행동이 내면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덕윤리에서는 올바른 습관을 발전시켜 부정적인 행위 유형이 점진적으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대치되도록 함으로써 인격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런 까닭에 영국의 불교학자인 데미온 키언(Damien Keown)은 불교윤리와 덕윤리 사이에는 '가족 유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불교를 부정적인 상태인 악덕(惡德)을 제거하여 그것들을 긍정적인 또는 건전한 상태인 덕성(德性)으로의 대치를 추구하는 자기전환의 길로 파악한다. '거리의 인간'에서 '붓다'로의 전환은 열반이라는 완전한 자아실현의 목표로 한 걸음씩 인도하는 특정한 덕성의 닦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열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인 번뇌를 긍정적인 덕성인 지혜와 자비로 대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설명 방식은 불교윤리의 성격을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윤리와 덕윤리를 동일시할 수 없는데, 불교윤리에는 공리주의적인 측면과 의무론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교윤리의 성격을 한두 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불교윤리에서는 불교적 가치를 구현한 삶을 추구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통해 인류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여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⑰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악업짓는 근본원인 무명 없애야

11. 아뢰야식의 두 가지 기능

불자 여러분! 아뢰야식의 마음속에는 선천적 정보와 훈습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선천적 정보에는 생리적 유전정보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집단무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생리적 유전정보에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및 유전인자(DNA)의 활동을 담당하는 '집지식(執持識)'과 부모와 조상에 의해 이루어진 업보에 따른 '업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뢰야식은 '선천적 정보'와 '훈습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종자식(種子識)'의 창고로서 자신의 마음에 끄달리고(반연), 외경에는 반연하지 않는 유루식(번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업은 종자로서의 아뢰야식에 훈습되고, 그 훈습의 과정을 겪으면서 잔류하게 된 습기가 결국은 종자를 오염시켜 악업을 지어 악도를 겪게 하고, 또 종자를 청정케 하여 정업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종자(種子)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것으로부터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 등 분별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진 기운과 습기, 자극 등을 마음의 '종자'라고 합니다. 〈성유식론〉 권 제2에 보면, "어떤 것이 종자인가 하면, 근본식인 아뢰야식 가운데에 있으면서 친히 자류의 결과만을 낳는 공능차별을 일컫는다."고 설해져 있는 바와 같이, 제8아뢰야식 내에 보존되어 있으면서 인연을 만나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가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선업에 의하여 훈습된 종자는 선법을 낳고, 악업에 의하여 훈습된 종자는 악법을, 내지 무기성의 것은 무기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법을 낳는 원리를 가리켜서 "자과를 친생한다"고 합니다.

12. 악업을 소멸하는 정법훈습(淨法薰習) 수행

불자 여러분! 결국 업을 짓는 것은 애욕이 원인이고, 애욕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의 원인은 모든 존재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이로 말미암아 악업을 짓고 삼계·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업을 짓는 근본 원인인 무명을 없애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악업을 소멸하는 수행법으로 정법훈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훈습의 의미는 옷에 실제로 향기가 없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향을 가지고 의복에 냄새가 스며들게 한다면 옷에 향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진여본성의 청정한 법체는 실제로 물드는 것이 아니지만 무명업식 때문에 훈습되기 때문에 물든 모습, 염상(染相) 즉 오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을 의지하는 염법훈습(染法薰習)은 탄진치 삼독심으로 마음을 더욱 오염시키고 어둡고 탁하게 만들어서 무명업식을 더욱 증장시키기 때문에 또다시 악업을 무수히 짓게 되므로 육도윤회의 고통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나 진여를 의지하는 정법훈습(淨法薰習)은 오염된 마음이 진여본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진여본성과 본래의 자연지혜를 발현시켜 삼계육도의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열반과 해탈을 얻게 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훈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4가지 다르마가 훈습되기 때문에 염법(染法)과 정법(淨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을 그 4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정법(淨法)이니 진여라 말하고, 둘째는 일체 더러움의 원인이니 무명이라 말하며, 셋째는 허망한 마음(妄心)이니 업식이라 말하고, 넷째는 망상의 대상이니 소위 육진이라고 말한다."

불자여러분! 우리 모두 악업을 짓는 근본 원인인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법훈습(淨法薰習)의 정진을 통해 자신의 진여법신을 증득하여서 자신이 바라보던 대상들이 바로 자신 안의 진여법신의 현현(顯現)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참다운 수행입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